

## 수의적 이동과 카타스트로프 이론

신 태 식

단독 / 강원대학교

**Shin, Tae-shig (2009), El movimiento opcional y Teoría Catástrofe.**

---

Este trabajo está dedicado al estudio de la opcionalidad mediante la cual los pronombres clíticos se pueden colocar como proclíticos delante del verbo finito o enclíticos después del verbo no finito en las oraciones complejas. Por lo tanto no intentaré presentar distintas visiones sobre la naturaleza de los clíticos del español ni explicaré el problema de la subida de clíticos desde ninguna perspectiva sintáctica.

El objetivo del trabajo en este caso es analizar que se analiza la tendencia o carácter de la opcionalidad que adquieren los pronombres clíticos en dichas construcciones con base en la Teoría Catástrofe, modelo que se usa en la Matemáticas, debido a que no hay todavía explicaciones definitivas de ella desde ningún punto de vista sintáctica.

Analizando ejemplos de su uso, he encontrado que la unión del verbo finito con el no finito genera unas tendencias diferentes en las colocaciones de clíticos, dependiendo del grado de unión en el que opera los dos verbos interesados.

Con este factor he logrado explicar por qué los pronombres clíticos aparecen como proclíticos o enclíticos de la manera catastrófica en ciertas oraciones complejas.

[Opcionalidad / Pronombres clíticos / Teoría Catástrofe;

수의성 / 접어대명사 / 카타스트로프 이론]

---

## I. 들어가기

최근에 우연히 “카타스트로프 이론”을 소개한 입문서(김용운, 1980)를 접하게 되었다. 이 저서를 읽기 전까지 본 저자는 수학은 천재들이나 전공하는 학문이며, 복잡한 수나 공식의 계산으로 우리의 현실생활과 너무나 동떨어진 학문 분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이런 경직된 사고의 틀 속에 박혀있던 저자에게 카타스트로프 이론은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 그 자체였다.

1972년에 르네 톰(René Thom)이 제안한 이 수학이론은 수나 난해한 공식을 사용하는 정량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 그에 의하면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과학적 이론이 아니라고 함. — 정성적인 방법 즉 모든 현상을 도형으로써 설명하는 기하학적인 방법을 추구하면서 복잡다단한 정치, 경제, 사회, 심리 현상들까지 직관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리플레이션 시기에 평가절하를 하게 되면 경제성장을 하고, 디플레이션에 평가절하를 하게 되면 경제성장이 없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현상을 복잡한 공식에 의존하지 않고 카스프(뺨기)형의 곡면을 이용하여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경제현상뿐만 아니라 취중에는 너무 속도를 내거나 또는 너무 느리게 달릴 수밖에 없다는 취중운전자의 카타스트로프 행동 패턴 또한 카스프 곡면을 사용하여 손쉽게 설명해 준다. 더 나아가 경제성장이나 취중운전에 적용한 카타스트로프 이론이 연애심리의 여러 형태에도 활용되어 여자들은 꾸준히 적극적으로 대하는 남자보다는 오히려 가끔 냉정한 태도를 보이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카타스트로프적인 현상을 증명하기까지 하였다.

스페인어학 전공자로서 이상의 실례들과 유사한 현상을 저자는 스페인어의 복합동사구조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동사구조에서 목적접어대명사가 문자화(Spell Out)의 연산처리 단계에 접어들면 전치접어(*Lo puedo hacer.*)로서 도출 되거나 후치접어(*Puedo hacerlo.*)로서 도출되는 급격한 위치 변동의 시점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최소주의이론(1995)에서 이동(Move)은 연산처리에 의해 형성된 구구조 표지 내에 있는 어떤 항을

표적으로 하여 다른 항을 상승시키고 그 이동의 동기는 형식자질의 점검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복합동사구조에서 목적접어대명사의 이동은 어떠한 문법적 필요도 요구하지 않은 완전히 수의적인 — 임의적이 아님. — 도출이어서 스페인어 모국어 화자 자신도 그 이동의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듯 스페인어 목적접어대명사의 수의적 이동이 카스프 곡면을 통해 이해된 평가절하와 취중운전, 연애심리의 카타스트로프적인 현상과 아주 유사함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도 카타스트로프 이론 중에서도 비교적 간단한 카스프 곡면을 통해 스페인어 목적접어대명사의 수의적 이동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요컨대, 기존의 수학적 방식과는 좀 색다른, 즉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카스프 곡면을 사용하여 접어대명사의 수의적 이동을 설명할 모델로써 설정하고자 한다. 특히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복잡한 수학적 지식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이론을 수의적 이동의 현상에 적용하더라도 본 저자가 논의를 전개하는 데에 별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 1. 접어대명사의 수의성

스페인어의 목적접어대명사는 [시제동사 + 비정형동사]의 복합동사구조에서 ‘수의적으로(optionally)’ 전자의 앞에 위치하거나 후자의 뒤에 위치한다.

- (1) a. Voy a dárselo.
- b. Se lo voy a dar.

(1)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문장은 모두 문법적으로 합치한다. 두 예문에서 나타나는 유일한 차이는 (1a)와 반대로 (1b)의 직·간접 목적대명사들이 문장의 첫머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동사와 목적어의 어순이 뒤바뀌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 두 문장이 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두 상반된 어순이 모두 허용되는 가하는 것이다. 이를 촘스키의 최소주의 이론(1995)을 토대로 간략히 분석하면, (1b) 문장 구조에서 “selo”가 동사구를 뛰어넘어서 시제동사로 부가하는 인상이동이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목적접어대명사들이 기능범주 T라는 핵의 최소 영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1a)에서처럼 이동하지 않고 의미역의 위치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1b)에서처럼 기능범주 T의 표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동일한 최소 영역 내에서는 표적의 등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두 어순 모두 최적의 도출이 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위의 두 문장의 합법적인 도출과정보다는,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등거리가 유지되지만 하면 국부적 경제성(Collins, 1997)이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수의성(optional)문제에 대하여 집중 분석하고자 한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수의성이 허락되는 구문에서 어순 A의 사용빈도는 어순 B의 그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이는 도출을 이끄는 각각의 연산과정에서 통사적 경제비용이 똑같이 들고, 의미적·화용론적으로 전혀 차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의적 이동을 자유로이 허락하는 구조는 빈도수에서 50 대 50의 비율을 보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예상된 기대치와는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예상치 못하는 다른 무엇인가가 연산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무엇인가가 실은 카타스트로프라고 본 저자는 가정하고 연구의 모티브로 삼았으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 (2) 전치접어와 후지접어의 수의적 이동을 허용하는 [시제동사+비정형동사] 구조에서 그 빈도수 차이는 카타스트로프 현상이다.

본 논문에서 이 가설을 검증하면 복합동사구조에서의 스페인어 화자가 전치접어를 선호하는 이유와 후지접어를 도출하는 현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근거나 원인 또는 이유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스페인어의 수의적 문장구문을 수학적 모델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언어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조금이라도 더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의 언어학이 신경학, 인지심리학, 사회학, 환경학 등과 연계하면서 새로운 발전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논문은 현대수학의 한 모델인 카타스트로프 이론과 접목하여 언어 분석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에 또 다른 의의가 있다.

## 2. 연구주제의 철학적 토대

데카르트의 철학적 방법론인 연역법에 매료된 촘스키는 기존의 언어이론에서 적용한 경험주의적 방법론을 따르기 보다는 보편문법에 내재한 원리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수리적인 방법을 언어학에 도입함으로써<sup>1)</sup> 생성문법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 특히 그의 최근 이론의 핵심 개념인 도출의 최소성이나 경제성은 이동의 거리나 횟수, 연쇄 고리, 운용의 최소 단계 등을 수량의 잣대로 표현하고 비교하는 전형적인 정량 방법을 취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촘스키의 언어이론들이 정량적인 검증방법을 택함으로써 언어학을 거의 자연과학의 위치로 승격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대상을 수량적인 방법으로만 분석한 수학뿐 만 아니라 그 방법론을 도입한 인문과 사회, 정치학 분야에서도 카타스트로프적인 질의 변화 앞에서 설명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고, 언어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이동(Move) 연산이 수량적인 방법을 통하여 가장 합치한 구문을 경제성에 입각하여 도출할 수 있다는 명제가, 스페인어의 복합동사구조에서 목적접어대명사의 수의적 이동의 질적 변화에 부딪혀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본 저자는 생각하였다. 앞절에서 언급했듯이 전치접어와 후지접어는 최소 영역 내에서 수량적으로 동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합치한다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 질적인 위치(전치와 후치) 변화에 따른 급격한 빈도수 차이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본 논문은 ‘수량적인’ 방법으로는 아직까지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있는 스페인어 목적접어대명사의 수의적 이동에 대해 카타스트로프 이론을 응

1) 이만기(2006), 『스페인어학의 이해』, p. 59 참조.

용하는 ‘정성적인’ 방법을 택하여 이동의 거리변화를 양적 척도가 아닌 질적 척도로 해석하고자 한다.

### 3.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케인이 『프랑스어 통사론 *French Syntax*』(1975)에서 목적접어대명사를 생성문법의 틀에서 다루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것의 수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그에 따른 논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루나(Luna), 아리아스(Arias), 콤파니(Company) 등으로 대표되는 멕시코국립대학의 전통문법학자들 비롯하여, 촘스키, 트레비뇨(Treviño), 페르난데스(Fernández) 등 생성문법학자들까지 논문의 테마로 정하여 계속 연구한 성과에 힘입어서 실질적인 논쟁인지, 격을 할당받는지, 수의적 이동의 허가 조건은 무엇인지 등 접어대명사에 관한 여러 논의들이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해 가고 있다. 게다가 접어대명사의 연구가 공시태에만 머물지 않고, 리베로(Rivero, 1986)를 필두로 해서 시간의 축을 따라 접어대명사가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통시적 연구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페인어 접어대명사는 박영미, 신태식, 조은영 등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어진 바가 있다.

기존에 연구된 스페인어의 접어대명사의 이동은 어떤 통사적 조건과 구조에서 허가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구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스페인어 생성문법학자들은 전통문법 학자들과 규범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인 견해 즉 ‘접어대명사가 복합동사구조에서는 전치와 후치 이동이 수의적이다.’라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접어 인상은 어떤 특정한 통사적 구조 내에서만 허용되는 문법 현상이라는 명시적 논증을 전개하면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영미(2005)에서 언급됐듯이 접어인상은 복합동사구조의 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일례로, 주어 통제구문에서는 접어의 수의적 이동이 통사적 제약 없이 허용되지만 목적 통제구문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본 저자는 연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접어대명사의 수의적 이동

이 허가되는 구문과 그렇지 않은 구문에 대한 이론 설명을 지양하고, 복합동사구조 중에서 접어대명사의 수의적 이동이 가능한 구문의 용례들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조동사와 동사원형의 구문, 우설법(periphrasis) 구문, 주어 통제구문, 사역구문 등에서 접어대명사가 수의적으로 전치하거나 후치할 수 있는 도출 구조만을 연구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같은 구문일지라도 어순의 변화나 문장요소의 삽입 등으로 어느 한 위치만을 강요하는 경우는 수의적 이동의 개념과 모순되므로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면, 아래의 보기에서 (3a와 b)는 연구 코퍼스에 포함되는 반면에 접어대명사의 수의성이 보장되지 않은 (3c와 d)은 포함되지 않는다.

- (3) a. Juan no intento hacerlo.  
b. Juan no lo intento hacer.  
c. Juan intento no hacerlo.  
d. \*Juan lo intento no hacer.

이상에서와 같이,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스페인어 목적접어대명사의 수의적 이동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행해진 연구의 성격과 전혀 다르다. 인공언어에 결핍된 특질인 언어의 수의성(optionality)을 카타스트로프이론을 통해 깊이 통찰해 보고, 언어에 대한 문법지식(UG)뿐만 아니라 언어 사용을 토대로 작용하는 인간 특유의 정신적 능력이 지니는 보편적 성향이 수의성을 통해 어떻게 문장 내에서 표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연구코퍼스 및 방법

### 1. 연구 코퍼스

본 논문은 복합동사구조에서 접어대명사의 수의적 이동을 언어 보편성의 한 단면으로 가정한다. 즉, 스페인어 모국어 화자의 내재된 언어 지식

의 한 단면을 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카타스트로프 이론을 중심으로 한 언어학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모국어 화자의 직관에 의해서 문법적이라고 판단되는 정형의 문장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 본 저자는 실제 발화의 예를 수집해 정리해 놓은 *El habla de la ciudad de Bogotá*를 선택한다. 이 코퍼스는 1964년 블루밍턴에서 개최한 언어학과 언어교육에 관한 아메리카 내의 프로그램에 관한 제2차 심포지엄(Segundo Simposio del Programa Interamericano de Lingüística y Enseñanza de Idiomas)에서 제기된 이베로아메리카와 스페인 주요 도시들의 표준어 연구 프로젝트의 사업으로 Instituto Caro y Cuervo에서 출판하였다.

위의 프로젝트는 표준어 연구의 기본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인터뷰 기준과 조사자대상자에 관한 장치들을 고안하였다.

첫째, 조사자대상자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종사자이고, 남·여 비율은 50%대 50%이고 나이는 25-35세, 36-55세, 56세 이상의 세 범주로 나누었다.

둘째, 총 60 건의 인터뷰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 a. 조사자와 조사대상자 간의 담화(표본 24개)
- b. 조사대상자 간의 담화(표본 24개)
- c. 비밀 녹음한 일상담화(표본 6개)
- d. 공식적인 담화(표본 6개)

본 논문은 위의 텍스트 『*El habla de la ciudad de Bogotá*』를 연구의 코퍼스로 활용할 것이지만, 수의적 이동을 허용하는 복합동사구조에서의 접어대명사가 직업별, 성별, 나이별, 이야기체 등의 사회적 변수에 의해 전치접어와 후치접어의 빈도수가 달라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각 변수의 비율을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성과 나이 비율을 똑같이 적용하면서 각각의 인터뷰 유형에서 표본 6개를 무작위(Random Sample)로 추출하여 연구 코퍼스로 활용할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접근방향이 사회언어학적인 접근법보다는 일반언

어학적인 접근방식을 통하여 문법 이외의 또 다른 언어적 보편성을 다른 각도에서 찾고자 하기 때문이다.)

## 2. 연구방법

“복합동사구조[시제동사+비정형동사]에서 전치접어대명사와 후지접어대명사의 빈도수 차이는 카타스트로프 현상이다.”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연구 코퍼스에서 접어대명사의 수의적 움직임을 허가하는 모든 문장을 추출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언어자료를 다음과 같은 단계로 처리하여 최대한의 연구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본다.

이미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총 60건의 담화 표본에서 최대한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언어학적인 변이를 배제하기 위해 각각의 이야기체에서 표본 6개씩 총 24개를 무작위 선택했다.

또한, 트레비뇨(1994)에 의하면 격 연쇄가 접어대명사의 이동에 통사적 제약을 가한다. 접어대명사의 수의적 이동에는 복합동사구조가 통사적 변수로 작용하고 형태론적 특징이 또 다른 변수라는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는 수의적 이동을 허가하는 문장만을 추출하여 그 빈도와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추출단계에서 접어대명사의 형태론적 특징이 수의성에 제약을 조금이라고 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격 연쇄 충돌의 문장들은 배제했다. 즉, 본 논문에서는 격 연쇄가 일어날 개연성 있는 구조를 회피함으로써 모든 격 형태의 접어대명사(me, te, nos, se, le, la, lo, las, los y les)를 코퍼스에 내포시킬 수 있었다.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

### (4) a. El cura hizo devolver el dinero al chico.

- 2) 2008년 스페인어문학회 겨울학술대회에서 위의 코퍼스가 현 시대와 많은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므로 인터넷의 검색 매뉴얼을 활용하여 작금의 접어대명사의 수의성의 경향을 조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조언을 받았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를 배제하였다. 그 이유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문장들의 문맥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으며, 일상 담화 같은 종류의 문장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b. El cura lo hizo devolver al chico.
- c. El cura hizo devolverlo al chico.
- d. El cura hizo al chico devolverlo.
- e. \*El cura lo hizo al chico devolver.

(4)의 예문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사역구문에서 접어의 수의적 이동은 목적격주어가 개입함으로써 불허된다는 것이다.<sup>3)</sup> (4e)예문은 다른 (4)의 예문들과 달리 수의성이 박탈됨으로 본 논문에서는 배제된다.

다른 한 편으로, (4b와 c)에서처럼 수의적 이동을 허가하는 도출의 구조만을 코퍼스에서 추출했다. 반면에, (4d)의 문장은 후치접어만이 가능하고 접어가 인상하면 비 문법 문장이 되므로 —(4e)를 보라.— 코퍼스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다. 즉 수의적 이동이 허가되지 않는다면, 전치·후지 접어대명사에 관한 스페인어 화자의 선호 경향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복합동사구조 중에서 접어대명사의 수의성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문만을 연구의 코퍼스에 포함시키는 데 주력했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힌다.

### III. 이론 모델

복합동사구조에서 스페인어 접어대명사의 수의적 이동은 카타스트로프적인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 본 연구의 가설이다. 환언하면, 단문에서처럼 전치접어대명사(*Lo compré ayer.*)만을 강요하거나 전치사구에서처럼 후치 접어대명사(*Para comprarlo.*)만을 필요로 하는 구조에 근접할수록 카타스트로프가 발생할 확률이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저자는 직관력을 바탕으로 복합동사구조에서 동사의 결합의 강도가 높을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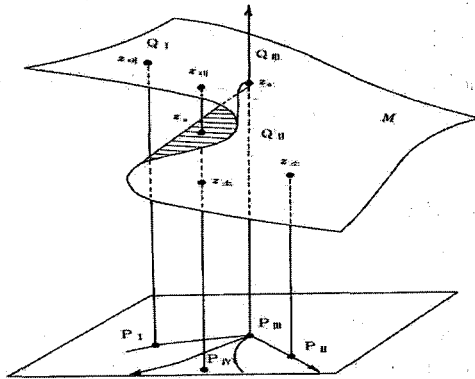
3) 이에 관한 설명은 프레비뇨(1999)에서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카타스트로프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반대로 결합강도가 낮을수록 카타스트로프 현상 또한 낮아진다는 잠정결론에서 논의를 진척시키고자 한다.

## 1. 카타스트로프 이론 모델

들여가기에서 언급했듯이, 평가절하와 추종운전, 연애심리 등이 카스트 곡면을 통한 카타스트로프 이론으로 과학적이며 타당한 설명이 가능하다. 스페인어 목적접어대명사의 수학적 이동이 앞의 카타스트로프적인 현상과 아주 유사함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수학적 모델에 따라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아래에 카타스트로프 이론의 기본 모델인 <그림 1>을 이해를 돕기 위해 삽입한다.

<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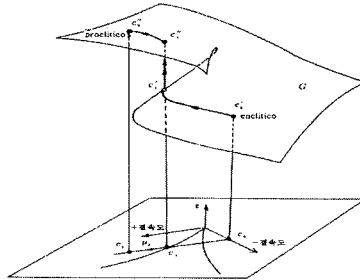
본 논의를 위해, <그림 1>에서 x 축의 변향은 복합동사구의 결속 강도가 높은 값(즉, +결속도)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조동사와 동사원형의 결속의 값은 주어통제구문에서의 동사원형과의 결속의 값보다 더 크다는 루나(1991)의 논거에 따른 것이다. 반면에 y 축의 변향은 두 동사의 결속 강

4) 김용운(1980), 카타스트로피 이론 입문, p. 22.

도가 낮은 값(즉 -결속도)으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위의 <그림 1>을 스페인어 접어대명사의 수의적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수정하여 적용한다.

<그림 2>



아시다시피, 복합동사구의 결속도의 값에 비례하여 접어대명사의 수의적 움직임이 그 만큼 ‘상식적으로’ 비례 하면서 커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속도의 값에 상응하여 어떠한 카타스트로프(급격한 변화) 현상을 드러내는지를 예측하고자 한 것이다.

(5) a. va a exigir/le

b. si le va uno a pintar la cara

예문 (5a)에서 복합 동사구는 조동사와 비시제동사의 결합으로 결속도의 값은 높지만 명시주어의 개입으로 결합의 강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 두 동사의 결속의 강도의 값이 최대라면 [시제동사+비정형동사]가 단순동사로 여기진다는 베쵸(Bello)의 주장<sup>5)</sup>을 <그림 2>에서 C2에 해당하는 곡면 G 상의 대응점 C2''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마치 S를 거꾸로 쓴 것처럼 구부러진 곡면 G는 전치접어(Proclitic)와 후치접어

5) Bello, *Gramática*, §1100.

(enclitic)의 빈도수를 나타내는 데 왼쪽이 높은 부분(전치접어의 빈도수가 크다)과 오른쪽이 낮은 부분(후치접어의 빈도수)으로 되어있다.

특히, <그림 2>에서 저자가 접어대명사의 수의적 인상을 유발하는 카타스트로프 지점, 즉 후치접어의 빈도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전치접어의 빈도수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는 지점은 아래 카스프 곡면의 C1이다. <그림 2>에서처럼 C0에서 C1까지는 접어대명사가 비정형동사의 뒤에 부가하지만 결속도의 값이 저점에서 고점으로 교차하는 시점인 C1을 통과하는 순간에는 곡면 G에서처럼 C1’(후치접어의 선호 지점)에서 C1”(전치접어의 선호 지점)로 갑작스런 점프가 일어난다. 이 급격한 변화를 카타스트로프라고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결속도의 값이 점차적으로 상승하다가 한 지점인 C1에 이르러서는 복합동사구의 접어대명사가 두 가능성의 연산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 연산단계는 곡면 G의 C1’에 대응하여 후치접어의 빈도수가 전치접어보다 훨씬 크며, 다른 하나는 C1”에 대응하여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통사적 수의성이 보장되는 도출 환경에서는 카타스트로프 현상으로 인해 50대 50의 비율로 전치와 후치 접어대명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논리적인 결론이 산출된다.

위의 잠정적인 결론이 본 논문에서 추출한 실질적인 접어대명사의 전치와 후치의 빈도수에 적용되는지를 경험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2. Auxiliar 복합동사구조

복합동사구조에서 시제동사의 통사적 위치에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동사가 조동사이다. 조동사의 문법 특성은 비시제동사와 결합하면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자기 고유의 의미를 상실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행위를 나타내는 기능이 덧붙여진다는 것이다.<sup>6)</sup>

6) El esbozo de un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p. 444-445.

조동사 복합동사구조 형태는 <ir a Inf.>, <echar a Inf.>, <venir a Inf.>, <volver a Inf.> 등과 <estar+gerundio>, <seguir+gerundio> 등으로 문장 내에서 드러난다.

첫째, 가장 많은 빈도수(총 84횟수)를 보이는 ir a Inf.의 경우를 살펴보자.

- (6) <ir a Inf> a. proclítico: 84.52%
- b. enclítico: 15.47%

(6)의 빈도수를 <그림 2>에 적용하여 보면, 전치접어대명사의 G 상의 점 c2"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쉽게 설명한다면, c0에서 c1, c2로 움직이면 곡면 상 G에서는 c0'에서 c1'로 왼쪽의 윗부분의 곡면에서 움직이고, 윗부분의 c1'점에서 오른쪽 아랫부분에 있는 점 c1"로 카타스트로프적인 점프를 하며 c2"로 오른쪽 아래의 곡면에서 움직인다. 마지막 점인 c2"는 수의성이 보장되는 구조에서 전치접어대명사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최고 점인 곳이다.

일견하기에, 위의 사실은 조동사 복합동사구조가 결속의 강도가 아주 높아 Bello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 같다. 즉 단순동사구조에서 전치접어대명사가 생성되는 것과 별 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카타스트로프 모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스페인어 모국어 화자들이 조동사 복합동사구조를 단순동사구조와 엄밀한 차이를 두고 있음을 빈도수가 비록 낮지만 후치접어대명사의 발현을 통해 증거한다. 약 16% 정도는 조동사 복합동사구조가 결속의 강도가 낮다고 무의식적인 판단을 하면서 후치접어화를 문장생성 시 외현적으로 도출한다. 단순동사구조에서는 모든 접어대명사가 시제동사 앞에 전치하는 현상과 비교하면 이 결론은 아주 명확하다고 본다.

다른 조동사를 내포한 복합동사구조인 <volver a Inf.>도 비슷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본 저자는 논리적으로 예측하였는데 비록 총 빈도수는 <ir a Inf.>와 비교하면 극히 미비하지만(총 6횟수), 그 접어 위치의 빈도수 경

향은 다음과 같이 저자의 예측에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 (7) <volver a Inf.> a. proclítico: 83.33%  
b. enclítico: 16.66%

이런 과학적 결론에 따라서, 조동사 복합동사구조의 범주 내에서 형태적으로 다른 동사의 결합을 보여주는 <estar+gerundio> 구조에서 전치와 후치 접어대명사의 위치 빈도수 경향 또한 예측할 수 있다. 이 구조는 ‘행위의 지속’이라는 일반적인 의미와 ‘같은 행위의 반복성’을 덧붙인다. 이는 다음의 예들의 차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 (8) a. La gente miraba el desfile.  
b. La gente estaba mirando el desfile.  
(Esbozo, 448)

<estar+gerundio> 구조가 조동사 복합동사구조의 범주 내에서 가장 결속도가 높다고 본 저자는 경험적으로 판단한다. 왜냐하면, 위의 다른 복합동사들과 달리 두 동사 사이에 어떠한 문장요소가 삽입하는 현상을 연구코퍼스에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sup>7)</sup>

본 저자의 이런 결론이 카타스트로프 모델을 이용하는 분석에서 다른 조동사 복합동사구조에서 보여주었던 것보다 더 높은 전치 접어대명사의 빈도수를 보여준다면 앞 단락에서 언급한 현상을 통해 내린 잠정 결론이 이론적으로 증명된다고 생각한다. 즉 <estar+gerundio> 구조는 다른 어떠한 복합동사구조보다 더 동사의 결속도 측면에서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Bello의 견해를 따르면 가장 단순동사처럼 행동하는 복합동사구조이다.

- (9) <estar+gerundio> a. proclítico: 87.5%

7) <estar+gerundio> 구조에서는 <ir a Inf.> 구조에서 보이는 다음과 같은 문장 요소의 개입을 본 연구코퍼스에서 본 저자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 I) a. y me iba inmediatamente a estudiar mi música.  
b. que le está dando renovación al.... a la lengua.

## b. enclítico: 12.5%

자료 (9)에서 이 구조의 총 빈도수는 24회 이었으며 전치접어대명사는 그중에 21회, 후치접어대명사는 3회를 기록하였다. 이 결론은 (6)과 (7)에 나타난 빈도 비율 보다 더 높은 수치이며, 이를 <그림 2>에 적용하여 본다면 그 차이만큼의 동사 결속도의 차이가 더 강하다는 것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카타스트로프 이론이 본 연구, 즉 접어대명사의 생성 빈도수 예측 중에서 조동사 복합동사구조의 설명에 효용이 있음을 본 저자는 경험적 과학적으로 증명하였다.

### 3. Modal 동사복합구조

『El Esbozo』에 의하면, Modal 동사복합구조는 동사의 행위에 의미적인 수정을 가한다. 스페인어에서는 이런 Modal 동사로 *deber*, *poder*, *querer*, *saber* y *soler*로 한정한다.

지금까지 통사론적인 관점에서 접어대명사의 수의성은 *auxiliar*와 *modal*의 동사복합구조 간의 차이가 전혀 없다는 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의 코퍼스를 통한 *modal* 동사복합구조 내에서의 전치와 후치의 빈도수는 *auxiliar*의 동사복합구조에서 나타난 것과 정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전형적인 *modal* 동사인 *querer* 경우를 살펴보자.

- (10) <querer+Inf.> a. proclítico: 52.17%  
b. enclítico: 47.82% (총 빈도수: 23)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사적 수의성이 보장되는 도출 환경에서는 카타스트로프 현상으로 인해 50대 50의 비율로 전치와 후치 접어대명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실험에 근거한 예측을 하였다 —III. 1장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querer* 복합동사구조는 거의 반반에 가까운 전치와 후치의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완전히 접어대명사가 복합동사구조 내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카다스트로프 현상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본 저자에게 예측하도록 하였으며, 그 예측은 다음의 문장의 대조를 통해서 정당함을 증명해 주고 있다.

(11) a. Juan pudo terminar la.

b. Juan la pudo terminar.

(12) a. Juan tuvo al capacidad/habilidad de terminar X (Radical)

b. Es posible que haya sido Juan quien la terminara (Epistémica)

(Treviño, 1999: 163)

문장(11a와 b)는 의미적으로 애매모호하다. 즉 그 모호성이 (12a와b)로 의미적으로 구별된다. Picallo(1990)에 의하면, Modal 복합동사구문은 거의 단순동사구문에 통사적으로 가깝게 응하지만 ‘의미적으로’는 뚜렷하게 (12)의 해석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이 두 의미해석의 차이는 화자가 접어대명사의 전치와 후치를 결정하여야 하는 연산단계에서 결정적인 단사가 된다고 Picallo는 주장했다.

본 저자는 Picallo의 주장을 카타스트로프 모델이 적용되지 않은 현상과 결부시키고자 한다. 통사적으로 그리고 외현적으로는 접어대명사의 수의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의미적인 해석의 차이<sup>8)</sup>가 존재하기 때문에 언어의 수의성 측면이 아니라 의미에 따른 접어대명사의 상이한 도출이라는 ‘의도적이며 필연적인’ 도출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당연히 Modal 복합동사구조는 화자의 의도에 따라 전치와 후치의 대명사 위치를 선정하게 됨으로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복합동사구조 내에서는 빈도수의 통일성 있는 경향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자는 예측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8) 본 저자는 스페인어 모국어 화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에 의거하여 Picallo의 의미해석의 차이를 받아들였음을 밝혀둔다.

- (13) <poder+Inf> a. proclítico: 63.38%  
 b. enclítico: 36.61% (총 빈도수: 71)

본 저자의 예측대로 (13)의 빈도수 비율이 (10)과 서로 다르다. 다른 modal 동사의 경우는 빈도수가 너무 낮아 여기서 생략하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동사의 결속상태가 modal 동사보다는 다소 약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스페인 한림원은 다음의 동사 또한 이 부류에 속한다고 정의한다.<sup>9)</sup>

- (14) intnección, deseo, voluntad: intentar, mandar, desear, prometer, esperar, proponerse, procurar, pretender, pensar, etc.

위의 동사들의 위치에 따른 접어대명사의 빈도수를 조사하려고 했지만 연구 코퍼스 테두리 내에서 보이는 횟수가 너무 빈약하여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 IV. 끝맺기

생성문법이론의 테두리 내에서 스페인어 접어대명사의 이동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촘스키(1986)가 GB이론에서 영어의 대용사가 LF에서 목적어 위치로부터 INFL에 이동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이동이 로망스어에서는 표층구조에서 일어나는 접어대명사 이동과 유사하다고 가정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토레고(1988)와 우리아헤레카(1988)의 연구가 접어대명사는 의미역과 격을 할당 받는다고 주장했고 후속 연구에서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음 단계는 복합동사구조에서 의미역 위치의 접어대명사가 시제동사에 상승하여 부가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 트레비뇨에서 어느 정도 밝혀지고 국내에서는 박영미가 최소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이를 설명하였다.

9) Real Academia Española, Op. Cit., p. 450.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동사구조에서의 접어대명사의 수의적 인상이 그 사용 빈도수에서 현격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현상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았지만 관련 연구가 아직까지 전혀 없었다. 접어대명사에 관한 연구의 흐름을 재고해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접어대명사의 수의적 이동에 대한 허가 조건이 설명되기 전에는 그 이동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복합동사구문에서 허용된 접어대명사의 수의성이 통사적 관점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고, 외현적으로 보이는 접어대명사의 전치와 후치의 생성에는 그 어떤 이유가 있음을 밝혀내는 데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수의성을 보인다고 잠정적으로 합의된 접어대명사의 위치가 사실은 복합동사구조 내에 추상적으로 작용하는 두 동사 간의 결속의 강도에 따라 전치와 후치의 빈도수가 비례적으로 증감을 보이지 않고 카타스트로프적인 현상에 따라 그 도출의 빈도수가 결정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접어대명사의 수의성이 완전한 ‘임의성’에서 기인한 문법적 도출이 아니라 복합동사구조 내의 동사 간의 결속의 정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본 저자는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본인의 결론에 다른 관점과 분석 방법 등에 의한 반론의 여지가 많다고 본다. 본 저자 또한 Modal 동사의 분석에서는 의미 해석 차이를 근거로 이 복합동사구조를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시도하지 않은 학제적 방식을 사용하여 접어대명사의 수의적 이동이 결국은 임의성이 제거된 어떤 요소와 원인에 의한 문법적 도출임을 보여 주었고, 모든 자연언어의 공통된 특성의 한 단면, 즉 언어에는 수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입증한 소기의 학문적 성과라고 본다.

결국 수의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현상도 일어날 때에는 어떤 필요와 원인에 의해 도출되는 경우이고, 일어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필요와 문법적 원인에 따라 요구되지 않은 것이라는 촘스키의 최소이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김용운. 1980. 『카타스트로피이론입문』, 서울: 우성문화사.
- 르네통. 1995. 『카타스트로피의 과학과 철학』, 이정우(역), 서울: 솔.
- 박영미. 2005. 「스페인어 접어 인상 연구」, 『스페인어문학』, Vol. 36, No. 3: 73-87.
- 신태식. 2006. 「스페인어 접어의 통사적 투사범주」, 『이베로아메리카』, Vol. 8, No. 1: 271-289.
- 앤소니 고틀립. 2000. 『서양철학의 파노라마 I』, 이정우(역, 2002), 서울: 산해.
- 이만기. 2006. 『스페인어학의 이해』, 서울: 한신문화사.
- 조은영. 2005. 「중세 스페인어 종속절에 나타난 전접어 현상(proclisis)에 관한 연구」, 『스페인어문학』, Vol. 36, No. 3: 111-126.
- Arias, Álvarez. 1997. *El español de México en el siglo XVI*, México: UNAM.
- Barbosa, Pilar. 1996. “Clitics Placement in European Portuguese and the Position of Subjects”, in Aaron L. y Arnold M. Zwicky(eds.), *Approaching Second: Second Position Clitics And Related Phenomena*, Stanford: Center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Informat.
- Bello, Andrés y Rufino Cuervo. 1847.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1988, Madrid: Arco Libros.
- Bonet, Eulàlia. 1995. “Feature Structure of Romance Clitics”, *NLLT*, 13, 607-647.
- Chang, Chin y Hernández Guillermo. 1995. *Colocación y concurrencia de los pronombres clíticos de tercera persona en el habla de la ciudad de Bogotá*, Tesis magistral, Bogotá.
- Chomsky, Noam. 1986.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en, and Use*, New York: Praeger.
- \_\_\_\_\_.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IT Press.
- Collins, Chris. 1997. *Local Economy*, Cambridge: MIT Press.
- Company, Concepción. 1990. “Datos sintácticos para la clasificación histórica del

- español”, en *Estudios lingüísticos de España y México*, México: UNAM-El Colegio de México.
- Fernández Soriano, Olga, (ed.). 1993. *Los pronombres átonos*, España: Taurus.
- Fontana, Josep M.. 1993. *Phrase Structure and the Syntax of Clitics in the History of Spanish*, tesis doctoral, University of Pennsylvannia.
- Fukui, Naoki. 1993. “Parameters and Optionality”, *Linguistic Inquiry*, 24: 399-420.
- Halpern, Aaron L. y Arnold. M. Zwicky. 1996. *Approaching Second: Second Position Clitics and Related Phenomena*, California: CSLI.
- Jaeggli, Osvaldo. 1993. “Tres cuestiones en el estudio de los clíticos: el caso, los sintagmas nominales reduplicados y las extracciones”, en O. fernández Soriano (ed.), España: Taurus.
- Kayne, 1975. *French Syntax*. Cambridge: MIT Press.
- Kayne y Jean-Yves Pollock. 1999. “New Thought on Stylistic Inversion”, Lyon, France.Labov, W., 1972, *Sociolinguistic Pattern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Luna, Traill Elizabeth. 1991. *Sintaxis de los verboides en el habla culta de la Ciudad de México*, Mexico: UNAM.
- Picallo, M. C.. 1990. “Modal verbs in Catalan”, *NLLT*, 8: 285-312.
- Real Academia Española. 1973. *Esbozo de un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Calpe.
- Rivero, María Luisa. 1986. “Long Head Movement vs. V2, and Null Subjects in Old Romance”, *Lingua*, 89: 217-245.
- Treviño, Esthela. 1999. *Las causativas del español con complemento infinitivo*,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 Torrego, Esther. 1998. *The Dependencies of Objects*, Cambridge: MIT Press.
- Uriagereka, Juan. 1988. *On Government*, Tesis doctoral, University of Connecticut.
- \_\_\_\_\_. 1995. “Aspects of the Syntax of Clitic Placement in Western Romance”, *Linguistic Inquiry*, 26: 79-123.

신 태 식

주소: 서울시 도봉구 창5동 주공2단지  
205-1401

E-mail: tlalpan@hanmail.net

- 
- 논문접수일: 2009년 9월 15일
  - 심사완료일: 2009년 10월 16일
  - 게재확정일: 2009년 10월 27일